

과업 11: 인공지능과 트랜스휴머니즘

협업 구성을 위한 도입 질문

많은 사람이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대체하는 새로운 구원과 구속의 수단으로 기술을 보듯이, 교회, 초교파 단체, 일터의 기독교인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제자화 하기 위해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가?

설명

지금은 유례없는 기술 발전의 시대이다. 인공지능부터 유전자 편집까지, 생명공학부터 실체가 없는 디지털 세계까지,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역동성은 유동적이다. 이러한 기술 도구들은 성경 번역에서부터 개인적인 복음 제시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복음의 진보를 위한 기회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이 더 넓은 문화로 확산됨에 따라, 복음의 타당성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면서 희망과 구원과 구속을 위한 새로운 대안 경로를 제시한다.

이러한 부상하는 실재를 인식하면서, 이 대화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사항을 탐구한다:

협업 질문

- 대위임령 노력은 어떻게 인공 지능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 우리의 희망이 기술적으로 우리의 존재와 몸을 점차적으로 바꾸는 상황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기술 발전은 그리스도를 더 잘 따르기 위해 일과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 이러한 발전은 복음의 타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개인은 복음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 선교/교회 조직/사역자가 제자 삼기와 복음 전도의 노력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가?
- 이러한 발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조직은 어떻게 세속적인 영역과 협력할 수 있는가?

하위 주제

- 트랜스휴머니즘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변증적이고 복음 전도 전략
- 디지털 복음 전도를 위한 조직적 협업
-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과 기술 발전

2024 서울-인천 대회 준비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의 다음 섹션을 읽어보라.

- 로잔 신학위원회가 작성한 서론
- 1부, 텍스트와 그래픽으로 구성된 전 세계적인 대위임령 현황
- 2부, '인공지능과 트랜스휴머니즘'에 관한 논문
- 3부, 주로 당신이 섬기는 지역교회나 선교단체가 위치한 특정 지역에 관한 자료